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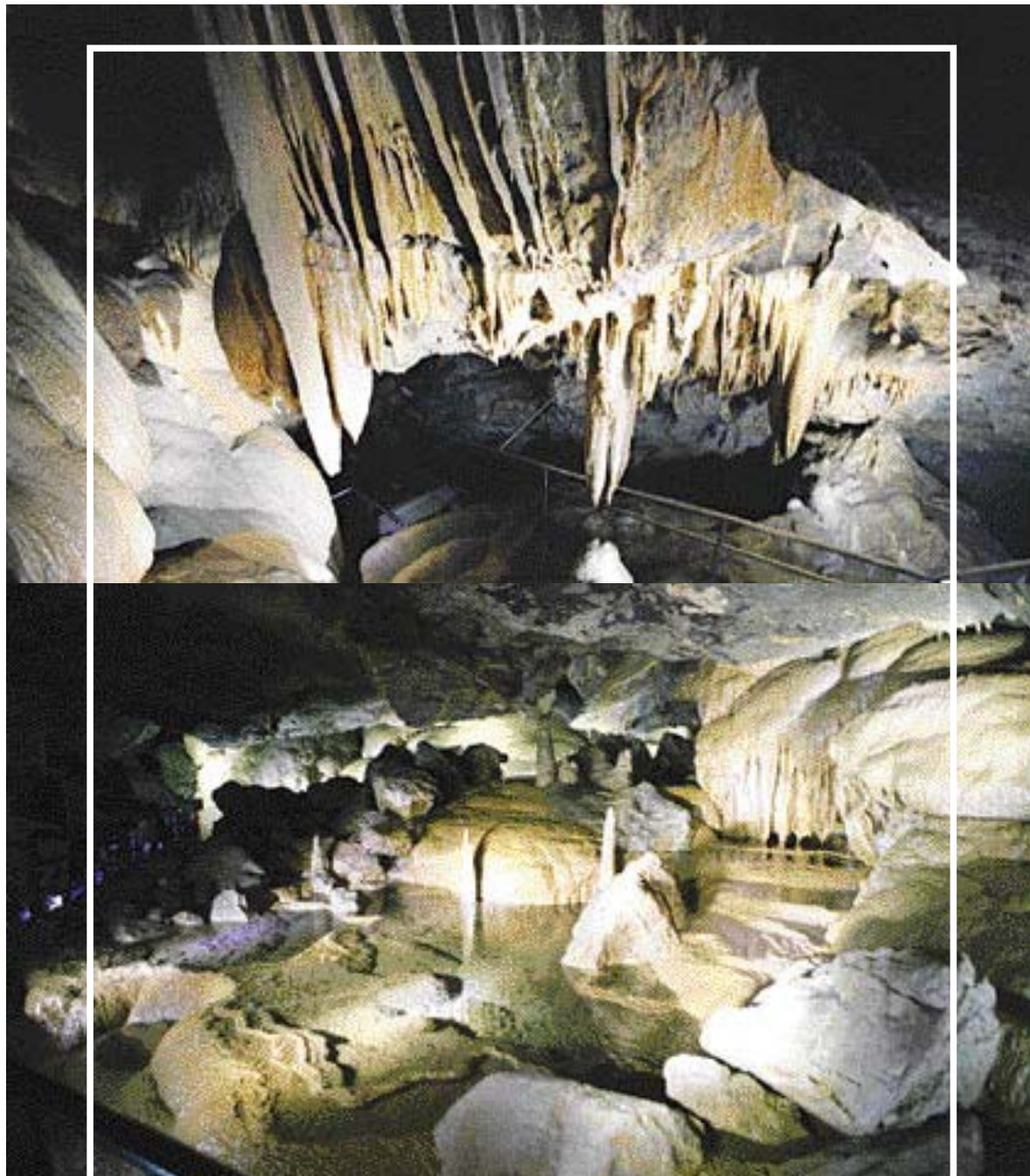
대자연이 빚은 걸작품... 동굴은 지금도 자란다

삼척 대금굴

푸른 동해바다와 신비한 동굴의 세계가 숨쉬는 삼척, 그 중에서도 신기면 대이리 대금굴은 입구가 외부와 차단돼 그동안 존재조차 알 수 없었다. 다만 예부터 지하에서 물길이 흘러내려 막연하게 동굴이 있을 거란 추측만 해 왔다. 그러던 중 '삼척 세계동굴엑스포(2002년)' 개최를 준비하면서 4년에 걸쳐 동굴실체를 탐문한 끝에 2003년 대금굴이 마침내 발견됐고 이후 다시 3년에 걸친 시설물 설치 후 지난해 6월부터 재공개됐다. 백두대간의 지맥인 덕항산 중턱 해발 400m 지점에 위치한 대금굴은 총 연장 1.61km로 5억 3천만년 전부터 태고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계속 동굴생성이 진행 중인 지하생태궁전인 까닭에 대이리 일대 7개의 동굴 중 가장 생생한 동굴의 세계를 자랑하고 있다. 그 신비의 땅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찾아가는 길

광주에서 호남-경부-중부-영동-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한 후 7번 국도를 따라 삼척까지 올라간다. 다음 삼척시를 통과해 태백과 도계방면 38번국도로 접어들어 환선굴-대금굴 이정표를 따라 가면 신기면 대이리 군립공원 관문이 나온다.



140m 암벽터널 통과 지하세계로



대금굴 입구는 깎아지른 산 중턱에 자리해 '은하열차'로 불리는 모노레일로만 접근 가능하다. 길이 610m에 7분간 운영된다. 동굴입구에서는 우렁찬 물줄기가 하얀 폭포를 이루며 대이천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그 옆을 지나 캄캄한 140m의 암벽터널을 통과하면 지하세

상인 대금굴 내부 동굴광장에 다다른다. 대금굴의 가장 큰 특징은 근원지를 알 수 없는 많은 양의 동굴수가 내부를 흐르며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폭포와 동굴호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굴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걸음을 땀지 않아 되자마자 굉음의 물소리가 들린다. 높이 8m의 비룡폭포다. 수억년을 흘러내린 그 웅장한 자태는 어느 계곡 유명폭포의 위용에 못지않다. 관람을 위해 설치된 철 계단 밑과 옆으로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모를 많은 양의 동굴수가 마치 계곡물처럼 포말을 일으키며 흘러가고 있다. 동굴 안은 때론 확 트이고 때론 머리를 숙여야 겨우 지나갈 정도로 곳곳에 대자연이 빚어낸 걸작품들은 은은한 조명을 받아 신비감을 더해준다. 동굴수가 넘쳐흐르는 석회암 바닥엔 작은 호수가 형성돼 있고 그 위로 계단식 논두렁 형상의 휴식소가 있다가 하면 깊이를 짐작하기 힘든 용소를 가로지르는 부안교를 건널 때면 동굴이 오싹하다. 동굴 안은 평균기온이 14℃, 습도는 95%를 넘고 있다.

국내 최대 3.5m 막대형 석순

중간지점을 돌아볼 즈음, 동굴내부의 암석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동굴 안 또 다른 동굴 아래에 섰다. 머리 위로 집채만 한 암석이 굴러 떨어지다가 서로의 몸을 의지해 멈추면서 하나의 공동(空洞)을 만들어 낸 곳이다. 대금굴 최고의 볼거리는 만물상광장에 모여 있다. 특히 지름 5cm에 높이 3.5m의 막대형 석순은 국내 최대 길이를 자랑한다. 자연이 수억년 공을 들인 결과물이다. 광장 한 벽면에는 완송이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형상 옆에 뱀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뱀 꼬리부분에서 다시 새의 형상이 돌출돼 있다. 어느 조각가가 저토록 정교한 작품을 새겨낼 수 있을까. 머리를 들어 천장을 보면 길고 짧은 종유석이 아래로 향해 자라고 있다. 속이 빈 종유관도 보인다. 종유관이 있다는 것은 동굴이 아직도 생성중이라는 증거다. 동굴수가 갈라진 바위 틈 사이로 흐르면서 때 모양으로 넓게 형성된 커튼 종유석과 동글게 뭉치면서 방패모양을 닮은 방패종유석도 눈에 띈다. 벽면에 바위를 얇게 저미듯 형성된 베이컨 시트도 있다. 발 아래로는 석순이 종유석을 향해 위로 솟구치고 있다. 이 둘이 만나면 석주가 된다. 천장에서 떨어진 석회 동굴수에 의해 바닥에는 석순이 돌고 있다.

끝나지 않은 대금굴 탐문

대금굴 관람의 마지막 장소인 천지연은 주위가 백두산의 천지를 닮았다. 비취빛 맑은 물은 어두컴컴한 동굴 속임에도 바닥이 환히 드러나 있다. 가장 깊은 곳이 수심 9m를 넘는다. 천지연 동굴 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다시 동굴회벽화가 펼쳐진다. 암석 사이로 진흙이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부처의 상들과 두 집게발을 벌이고 있는 개재형상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천지연 깊은 물 저 건너편에 미지의 검은 동공이 연결돼 있다. 수중을 통해 다시 동굴이 이어지는 대금굴 미지의 영역이다. 아쉬움을 달래려면 대금굴 모노레일 승강장에서 나와 30분쯤 걸어가면 환선굴이 있다. 대금굴 입장권이 있으면 환선굴 입장은 무료다. 대금굴 관람료는 어른 1만2천원, 청소년·군인 8천500원, 어린이 6천원. 인터넷 예약 필수.

/글=유문기기자 podj2@msnet.co.kr /사진=정재호기자 newj@msnet.co.kr (대구매일신문제공)



역경의 시간이 빛어낸 자연의 신비 대금굴 내부 모습.(위 사진) 여전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석순과 종유석이 생성되고 있고 또 이들이 만나 석주를만든다. 7번국도를 따라 북으로 가다가 경복을 벗어나 강원도로 접어들어 약 20분 정도 가면 아름다운 어촌항구 갈남항이 나온다.

졸깃한 면발 시원한 육수 여름철 별미

메밀막국수



삼척시에서 대금굴 가는 38번국도 변의 '부일막국수(033-572-1277)'는 전 통적인 영동지방 막국수의 맥을 잇고 있다. 메밀과 전분을 반반씩 섞어 가늘게 즉석에서 뽑는 이 집의 막국수는 면이 졸깃하고 멸치 육수가 시원해 여름철 별미로 인기가. 특히 막국수와 함께 제공되는 걸절이식 하얀 배추김치와 얇게 저민 무김치는 담백하면서 시원한 맛이 막국수의 면과 찰떡궁합을 이룬다. 주말이 완전 개방돼 면 뽑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비빔막국수와 물막국수가 6~7천원이다.

더우시죠? 지치고 피로하시죠?

무더위와 자외선이 강해질수록 항산화제 보강, 아로나민씨플러스

특히 여름철엔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감인 자외선으로 활성산소(유해산소)가 증가하여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비타민군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C, 셀레늄, 아연 등 항산화제를 보강한 아로나민씨플러스는 발한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과 활력을 높여줍니다.

항산화제 보강-종합비타민 아로나민씨플러스

- 항산화제 보강: 비타민C, E, 셀레늄, 아연 등 영양학적 보강
- 피로, 스트레스, 기피, 숙면

항생비타민 피로회복제-아로나민골드

- 통증이 잘 되는 활성비타민 B1, B6, B12와 비타민D, E
- 피로, 신경통, 근육통, 병후·병후 회복

1. 1일 2회 식사후 복용하시고 2. 가이온 약국에서 구입하세요

3. 판매처: 마약모든 비타민C (200mg/25캡슐)

문의: 02-22-10111 | www.aroamin.com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 967-1000